

[인공지능신문] 메일랩, 구글 헬스 AI 팀과 전략적 협력 논의 및 투자 협의 진행

전미준 기자 입력 2025.02.22 20:40

출처: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3972>



(왼쪽부터) 애슐리 캐릭-라마스(Ashley Carrick-Llamas) 구글 헬스 AI 팀장, 구글 클라우드 전략 팀장 찰스 첸(Charles Chen), 메일랩 양동하 부사장(사진:메일랩)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기술 기업 메일랩 (대표 양필승)의 양동하 부사장은 구글 헬스 AI(Google Health AI)팀과 지난달 27 일,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구글 본사인 구글플렉스(Googleplex)에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2 일 밝혔다.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암 중 하나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등의 발표에 따르면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2022 년 기준 230 만 건의 신규 발생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전체 여성 암 발생의 약 11.6%를 차지하며, 여성 암 사망 원인 중에서도 높은 순위로 유방암 발생률은 국가 및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서구화된 생활 습관과 고령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는 2050 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을 포함한 암 환자가 3500 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5.5%로, 여성암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암울한 통계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바로 조기 발견과 예방이다.

메일랩은 현재, 유방암 조기 예측 및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메일랩은 최적의 성능과 정밀도를 달성하기 위해 4D MRI 데이터를 자체 개발한 AI 슈퍼컴퓨터로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슈퍼컴퓨터는 2 페타플롭스(petaFLOPS)의 연산 성능을 갖추고 있어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메일랩은 보다 정밀한 치료 전략을 수립하고, 치료 후 모니터링을 최적화하며, 유방암 발병 및 재발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 헬스 AI 팀은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질병 예측, 조기 진단, 예방, 그리고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의료 현장에서 AI 기술의 실질적인 적용과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메일랩은 AI 기반 의료 기술을 통해 정밀의료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략적 협력 방안과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